

잘못 심겨진 경우의 보철 대책



손미경 광주 보스톤치과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레지던트 수료
- 미국 하버드 치과대학 보철과 전임의
- 미국 텍사스 주립대 샌안토니오 치과병원 임플란트 전임의
- 현) 광주 보스톤 치과 원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겸임교수

임플란트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또 임플란트를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려운 증례, 즉 다소 해부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임플란트의 식립은 다양하게 소개된 부가적인 수술법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의 식립을 야기하고 이는 더 나아가 환자의 심미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초기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가 주로 임플란트 고정체의 표면처리나 외과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된 반면 식립후 발생하는 보철단계에서의 실패는 이차적인 실패로 간주되어 경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임플란트의 개발과 우수한 표면처리 등으로 임플란트 자체 재료에 의한 실패는 줄어든 반면 식립 후 부딪히게 되는 보철적인 문제점이 임플란트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임상가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의 평가는 결국 수술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보다는 최종 보철물이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저작이 잘 되는지라는 점임을 생각해보면 치과의사가 이차적이라 생각했던 실패가 환자에게는 가장 큰 실패로 인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임플란트의 보철적 실패를 가장 많이 야기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식립위치 이상으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골 유착이 완성된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은 처음 술자의 치료계획, 즉 임플란트 식립전 이미 계획된 보철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임플란트 수술시의 골 상태나 잘못된 식립각도 등으로 인해 술전 의도에서 벗어난 임플란트의 위치는 차후 심미적 및 기능적, 그리고 위생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보철을 야기하며 더 나아가 나사풀림이나 수동적 적합성 획득의 실패, 구성요소의 파절 등 기계적 문제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본 연재에서는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 후 직면하는 식립위치의 이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보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